

전주시-LH 전세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18일~24일까지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주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한다.

전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도 주변 전셋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주시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38호를 포함한 기존주택 208호,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64호 등 총 272호이다.

전주시 지역 지원한도액은 5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을 부담하면 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



세월호 참사 1000일, 기억교실을 찾아 최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416기억교실에서 천안세월호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순위 동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년 12월 27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에 해당한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장애인의 경우는 100% 이하)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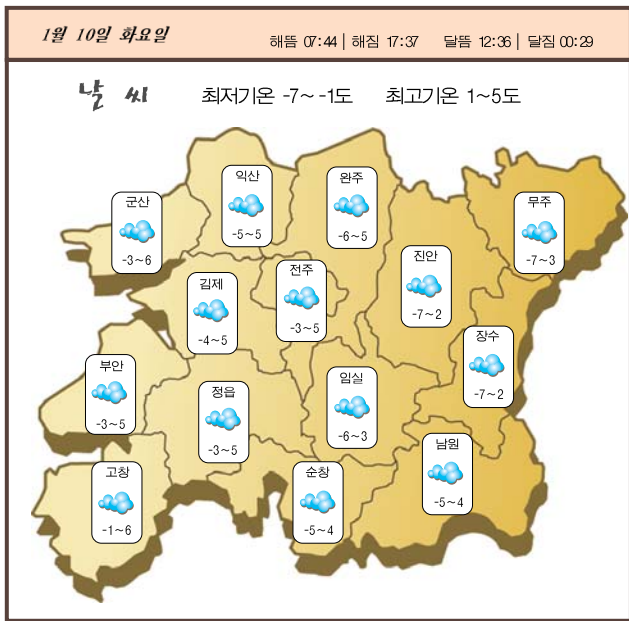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

지 등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LH는 약 2개월가량의 확인조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입주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새소식란 또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198)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 겨울방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학·예술·체육·공예 등 다양한 교육 과정 진행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허회준)에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9일부터 26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주 5회 14일간 겨울방학 학생 특기적성 프로그램 '바이올린 교실' 등 19개 과정을 운영한다.

겨울방학 학생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중 학생들의 여가활동과 체험활동으로 심신단련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과학·예술·체육·공예 등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관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족공예', '블록 조립 교실', '북 뮤지컬', '카주와 우쿨렐레 합주', '댄스' 등 5개 과정을 신설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한교육문화회관 허회준 관장은 "겨울방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독서 글쓰기교육 추진계획 발표

중·고교생 독서토론 인문학캠프 개설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책꾸러미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독서토론 인문학캠프를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초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책꾸러미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9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독서 글쓰기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중학생·고교생 독서토론 인문학캠프를 개설한다.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에 1박2일간

각각 40개 학교 2백여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저자와의 질문과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3월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책꾸러미 지원사업에 32억원이 투자되며 학교별로 책읽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어과 교사 120명이 문학기행과 작가 특강 수업 개선을 고민하는 세미나도 11월에 추진된다.

이와 함께 토론 협력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례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고교생 인문학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토론형 수업과 학생들의 독서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토론협력형 수업 동아리, 교과연구회, 교과 및 법과 동아리, 정책동아리 등 다양한 교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책쓰기 동아리, 백일장 논술대회 지원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연중사업 참여자 688명을 모집한다.

노노케어 사업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및 말벗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등 11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추진

교육부는 훈령 제195호를 통하여 2017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부 권한 관리 제도 개선 및 기재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시스템 개선, 교원의 책무성 강화 등을 통한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이다.

학교장의 학생부 권한 부여시 조희와 조희·인력'으로 명확히 구분 부여하여 학생부 인력 관련 권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학생부 인력 주체가 모호한 항목은 인력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으로 전환하고 학교 및 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월 4차례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연구부장, NIS 담당교사 연수를 계획 중이다.

이들 연수에서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단위 과목별 평가규정 안내서" 등을 통하여 학생의 성장과 과정중심 평가 수업과 연계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기재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국립승리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